

전북대 김지환 교수, 어린이 교향악단 지휘자 위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김지환 교수(예술대 음악과)가 전라북도 어린이 교향악단의 어린이 교향악단 지휘자에 위촉됐다.

전북대는 지난 6월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어린이 교향악단 지휘자로 김지환 교수가 선정·위촉됐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지환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 예향 전라북도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휘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 작곡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전문가 과정을 졸업했고,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디플로마를 마쳤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단장 겸 음악감독을 역임했고, 현재 오케스트라 판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재훈 기자

“건강한 삶 누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

남원시보건소, 맞춤형 방문재활 서비스 실시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에게 남원의료원과 연계한 맞춤형 방문 재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보건소 내의 자원을 연계해 통합건강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331명(연인원)의 대상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거동이 가능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도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원의료원과 연계한 “맞춤형 방문재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에는 보건소 방문재활 서비스 이용자와 의료원에서 고관절 골절 및 뇌혈관 질환으로 퇴원한 환자,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한 방문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며, 보건소 물리치료사와 남원의료원 작업치료사가 주 1회 이상 방문해 근력, 관절 가동범위 운동과 일상생활 동작수행 방법, 간이치매검사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원=김기두기자



한편 남원시보건소 유애란 재활담당자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한우협, 축산농가·이재민 위문품 도에 기탁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회장 정운섭)가 지난 28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이재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우협량 및 육포 6,800개를(3,000만원 상당) 전북도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은 김관영 도지사와 (사)전국한우협회 한양수 부회장, 전북도지회 정운섭 회장,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동환 위원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정성을 보태 준 한우협회 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회원들의 따뜻한 온정은 호우피해 농가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과 용기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중부지역아동센터, 실버요양센터 방문 나눔실천

중부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김제 지역의 요양원 두 곳을 방문해 나눔을 실천하는 함께! 행복! the 나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중부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직접 만든 간식을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28일에 오전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과일청, 쿠키를 포장한 뒤 이정자 김제시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행복실버요양원에 전달했다.

2차는 8월 7일 오전에 아이들이 부드럽고 딱딱이 편한 미니케이크를 만들고 오후 13시에 덕암고 앞 원로요양원을 방문해 간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이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간식을 제공하고 오카리나 공연을 계획 중이며, 어르신들의 옛 추억과 기쁨을 주고자 이빠의 청춘, 고향의 봄을 연주했다. /김재=락노태 기자

전북대 김가현 학생,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 대회 본선 진출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생으로 선발... 세계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전북대를 알리고 싶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영어교육과 김가현 학생이 제 35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WMU) 한국 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김가현 학생은 지역체를 겸비한 우수 학생으로 평가받아 세계 각국 우수 여대생을 세계대학생 평화 봉사단으로 임명하는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 대회 본선 진출자로 선발됐다.

본선에서는 지구촌 평화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사랑과 평화를 수호하는 지구촌 캠퍼스 최고 지성인을 선발하는데, 김가현 학생이 진출함으로써 전북대를 세계에 알



리고 글로벌 대학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가현 학생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생으로 선발되고 싶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세계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전북대를 알리겠다”고 했다.

본선 합격자들은 오는 8월 25일부터 6박 7일간 합숙 후 8월 31일 열리는 본선 대회에 참가한다. /김재훈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8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지난 1월 시작한 기부 릴레이로 전국 지자체장, 유명인사 등이 참여, 기부자가 기부 사진을 인증한 후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필형 동계문구창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최영일 군수는 전라북도 13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다음 주자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지명했다.

최영일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위한 인증 챌린지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세아베스틸·군산시,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 체결

군산시는 28일 (주)세아베스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와 2023년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업무협약을 통해 △명절 백미 기탁,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여름나기·겨울나기 성품 후원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여름나기 200채, 선종기 200대 총 2천4백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성품도 함께 기탁했다.

세아베스틸은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기업 정신으로 2012년부터 군산시와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및 복지시설에 총 22억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세아베스틸 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세아 러브하우스, 세아 산타 데이 등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영성근 노조위원장은 “항상 자발적으로 나눔문화 활동에 참여해주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하며, 올해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오병길 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세아베스틸은 노사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



는 기업으로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수 군산시장은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신 세아베스틸 임직원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군산에서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제11회 무주농협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제11회 무주농협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28일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이해양 의장, 윤정훈 도의원, 김범석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 구천동농협 김성근 조합장, 원로조합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게이트볼 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조합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협동정신을 발휘하는 물론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참가팀은 무주팀, 안성8팀, 적성3팀, 부남2팀, 진도2팀, 마암3팀 19개팀 130여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자별 1:1 대면컨설팅

순창군은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컨설팅을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 개선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컨설턴트와의 1:1 대면 컨설팅으로 진행됐으며, 신규사업, 청년 및 일자리 사업 등 20건에 대해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방법,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대면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담당자들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도박문체치유센터, Clean School 여행학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산하협력단이 위탁운영 중인 전북도박문체치유센터(이하 전북센터)가 Clean School 여행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Clean School 여행학교는 전북지역 3개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를 목적으로 구성된 대안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이 프로그램 내용 구성과 계획에도 직접 참여했다.

7월 28일까지 1박 2일 진행된 프로그램은 서울 일원의 남산 야경 여행과 연극관람, 유람선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도내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취미활동을 경험하면서 호기심과 충동성으로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김선길 지리산로타리클럽 회장, 두유 60박스 기탁

남원시 인월면은 지리산로타리클럽 김선길 회장(제45대 회장)이 지난 27일 면 지역사회보정협의체에 두유 60상자(환가액 130만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살림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두유가 간편한 영양 보충식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희망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 이정일 위원장은 “훌륭하신과 소외계층의 영양을 챙겨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 시 소속 전 부서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남원시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 소속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보건 역량과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부서장이 적극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령내용 △중대재해 사례공유 △현업업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내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는 소속 전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사업장 내 작업환경과 안전장비 점검, 근로자 교육 등의 업무를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무주교육지원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전교육 호응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지난 27일 2023 무주글로벌 해외 영어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사전교육 성과 보고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다.

뉴질랜드 영어체험을 위해 출국을 앞둔 학생들은 학부모들 앞에서 우리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준비한 공연과 발표를 보여주었고, 현지 인문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출국 전 주요 확인 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했다.

이날 8차 사전교육과 학부모 간담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이 아이가 그동안 사전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한글 배우는 모습을 보여 행복했고, 날마다 한글 일기와 영어 일기를 쓰며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